# 불안한 장애인 전동휠체어

## 안전장치 의무화 이전 구형 제품
## 방향지시등·전조등 없어 사고 위험
## 광주 6200여대 보급… 대책 시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스쿠터 포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방향지시등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구형 제품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휠체어는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로의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사고 위험을 안겨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보조금(개인당 약 210만원)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구입·이용중인 장애인은 모두 6270여명에 이른다. 각 자치구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내구연한이 6년인 전동휠체어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형 전동휠체어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비상조명등, 전조등 등 야외 운행시 필수인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말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전동휠체어 제조시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광주 등 전국에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센터를 만들어 전동휠체어 개·보수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과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등의 문제로 안전장치가 없는 전동휠체어 상당수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동휠체어 가격이 대당 수 백만원으로 고가인 데다가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만 새 제품 구매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개·보수 비용 역시 일부만 보조돼 적잖은 장애인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불안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안전장치 의무화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장애인이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인도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면서 차량 운전자들과의 사고 발생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가용 운전자 이모(39·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방향지시등이 없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도로에서 마주칠 때면 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센터 관계자는 "1인당 5만~1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안전장치의 경우 추가 설치비용이 들어 장애인들이 개·보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3일 전동휠체어(스쿠터)를 탄 한 노인이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공원 인근 도로에서 위태롭게 차량 사이를 지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숯불탄·번개탄은 중금속 덩어리

## 벤젠 유해지수 180배 초과
## 카드뮴 18배·바륨은 3배

고기를 구울 때 주로 사용하는 성형탄 제품의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바륨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이런 성형탄을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을 때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최대 180배에 달해 관리 및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중 대형마트 및 소형슈퍼에서 판매 중인 4종 13개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 함량 및 위해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성형탄이란 목재, 톱밥 등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든 숯가루를 성형해 제조한 숯

불탄, 번개탄, 조개탄 등의 제품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아래로탄 9개와 숯불탄 1개, 조개탄 1개 제품과 함께 대조용으로 참숯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숯 1개와 아래로탄 2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에서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물질과 납, 카드뮴, 크롬, 바륨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바륨의 경우 kg 당 최대 113g이 포함된 제품이 발견됐다. 바륨은 성형탄의 착화력을 높이기 위한 사용된다.

이처럼 성형탄 자체에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아래로탄 1개 제품은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2499로 나타났고 카드뮴은 최대 18배, 바륨은 2~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웨딩업체 지하창고 불** 1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불로동 모 웨딩업체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불은 15분만에 진화됐으며 건물 입주민 6명이 가벼운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어민에 준 연구비 빼돌려 유흥비로

## 서해해경청, 3년간 6천여만원 횡령 전남 해양수산원 직원 구속

### 道, 상급자 연대책임 묻기로

어민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빼돌린 뒤 유흥비와 회식비로 쓴 공무원이 해경에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3일 어민 몫으로 나온 지역특화사업 및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수년간 횡령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직원 김모(39·6급)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김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건네 준 어민 최모(60)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중인 각종 어패류 양식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 선박 등 연구시설을 대여해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6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김씨는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통장을 건네 받은 뒤 연구비 가운데 일부만 최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연구비 일부를 김씨가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김씨가 3년이 넘도록 횡령을 일삼고, 자신이 챙긴 연구비 일부를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토대로 상급 공무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김씨가 소속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상급기관인 전남도는 비리사건 발생시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징계하라는 최근 박준영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대로 비위직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워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었던 해양수산과학원은 2년 전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인원과 예산이 이관됐으며 전남도에도 106명이 옮겨 와 근무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2만원 연꽃 씨앗 120만원에 판매

## 목포경찰, 한약재로 속여 판 일당 검거

목포경찰은 13일 저가의 연꽃 씨앗을 값비싼 한약재로 속여 판매한 이모(여·75)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1시40분께 목포시 상동 모 우체국 앞 인도에서 2만5000원 상당인 연꽃 씨앗을 120만원에 조모(여·46)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승합차를 이용해 한꺼번에 이동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일명 바람잡이와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아 값싼 연꽃 씨앗을 고가에 구매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금목걸이 날치기 잇따라

## 광산구서 보름새 3건

광주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금목걸이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8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모 아파트 앞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길을 걷던 김모(여·50)씨의 시가 3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났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0시15분께 광산구 소촌단지 모 산업 앞 인도에서 이모(여·44)씨가 검은색 차량을 탄 남성에게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겼으며,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도 소촌동 한 도로에서도 박모(57)씨가 차량을 탄 남성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날치기 당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근무중 인격모독 당했다"

## 북부경찰 의경 투서

최근 광주경찰청에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의경의 이메일 투서가 접수돼 경찰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에 따르면 북부경찰 소속 A의경이 지난 6일 B경찰관으로부터 근무 중 인격 모독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금형 광주경찰청장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투서 직후 A의경은 광주경찰청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현재 광주경찰청은 진상 파악 중에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 10일 감찰팀을 해당 광주경찰청과 경찰서로 급파해 A의경과 B경찰관을 상대로 개인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B경찰관은 "아직까지 투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될 만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피해

## 애플코리아 첫 위자료 지급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신청에 대해 애플사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법은 김형석 변호사(36·법무법인 미래로)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코리아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소송 대신 곧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 "돈 안 갚으면 못 헤어져" 심야 난투극

**쌍나팔**

○…동거중인 40대 남녀가 결별을 앞두고 '돈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폭행해 나란히 경찰서행.

○…1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모(여·46)씨와 이모(43)씨는 지난 12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술집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서로 얼굴을 3~4차례씩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3년째 자신과 동거중인 이씨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빌려간 돈을 갚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다"고 대답했다가 감정이 격화돼'심야의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9급 소방직(전문) | 민경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SMART 전략!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
이 론 반 (8주완성) 7월 9일 ~ 8월 28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9월 3일 ~ 10월 16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